

## 권해옥 회장 만장일치로 제18대 대종회 회장에 추대 안동권씨 대종회 제46차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대종회 제46차 정기총회가 5월 27일(수)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자유총연맹 1층 남산제이 그랜하우스에서 130여명(위임 110명)의 족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회를 맡은 권건중 사무총장은 성원보고를 했다. 권속동 안동 종친회장은 안동권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자고 호소하며 개회를 선언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권영세, 권명호 당선자에 대한 당선축하패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권영세 당선자는 대한민국과 사회 발전을 위해 안동권문의 명예를 걸고 부끄럽없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권명호 당선자는 고문 등 족친들에게 큰 절로 인사를 하며 안동권씨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안동권문에 누가 되지 않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랑스런 일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권오록 고문, 권광택 부회장과 권오덕 중군 정도 안동권씨 종친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관련기사 3면)

대종회 장학금은 경상대 권석영(여) 등 총 11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전달하였다.(관련기사 3면)

2019년 결산보고 및 2020년 예산 승인에 대해서는 권오상 총무국장이 보고했다.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권혁창 감사는 감사보고를 했다. 이어서 권오상 총무국장은 정관개정안에 대해 보고했다. 권주연 족친은 정관 제4조와 제16조 내용이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정관개정 절차상 수렴이 불가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어서 권영익 수석부회장은 임시의장으로서 5월말로 현 집행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회장 후보등록 공고 결과 권해옥 후보 1명만 등록했으며, 이에 5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했고, 5월 19일 종무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에 권경석(전 국회의원) 상임위원은 권해옥 회장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단독 추천되었다. 권해옥 회장은 80대의 고령임에도 청년같은 열정으로 대종회에 진력하고 있다. 첫째는 100만 안동권문의 자긍심과 자존감 및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시조 묘역 성역화를 추진했고, 권윤장군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할 안동권문의 역사적 과업이다. 둘째는 대종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집행부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셋째는 대종회의 재정질서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종보를 발행하고 대금수납체제를 확립했고 회비 납부제도 정착을 통해 8천만 원을 흑자로 전환시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대종회의 영속적인 발전과 정체성 확립 그리고 자존과 자긍심 확립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차기 회장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임시의장은 재장 삼장을 회중에 묻고 정관 제10조 1항에 의거 권해옥 후보가 만장일치로 제18대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음을 선포했다.

다음은 감사 선출에서 권영하 상임위원이 지난 3년간 수고한 권오덕 변호사와 권혁창 세무사 두 사람을 다시 감사에 추천하자 임시의장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권오덕, 권혁창 감사가 만장일치로 다시 감사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했다.

권해옥 회장은 회장 추대 수락 연설에서 부족한 저를 18대 회장에 추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권문 역사의 정체성과 친목도모 그리고 안동권문의 위상을 제고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일을 추진했는데 만족할 만큼 이루지는 못했다. 회관 문제도 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좌절되었다. 권윤장군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문

제는 절실한 문제다. 100만 족친들이 땀땀 땀치고 집행부에서 국회의장과 청와대를 찾아가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성의만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100만 족친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여 꼭 성취시켜야 한다. 다음은 능동성역화 문제다. 시조 묘역 진입로 공사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 중이다. 3대에서 9대 선조에 대한 설단 문제는 족친들의 협조를 구해서 꼭 해내도록 하겠다고 수락 연설을 마쳤다.

이어서 기타토의 시간에 권영하 상임위원이 권정달 전 총재를 명예회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권해옥 회장은 권정달 전 총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데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권정달 전 총재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음을 선포했다. 권부성 부회장은 앞으로는 일가끼리 안동권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능동성역화는 대종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전원 박수를 보내 찬동의 뜻을 표했다.

다음은 권오록 고문이 단상에 올라 대한민국의 만세! 안동권씨 100만 족친 만세! 안동권씨 대종회 만세!라고 만세삼창을 선창하자 참석자 전원은 일어나서 회관이 떠나가도록 만세삼창을 크게 외쳤다.

참석자들은 점심식사를 한 후 화전그룹 권영렬 회장이 제공하는 선물을 하나씩 받아들고 헤어졌다. 권정걸 안양회장과 권오돈 회장 이하 추밀공파 회원 일동은 화환을 보내 총회를 축하했다.

권영세, 권명호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당선축하패 전달



권해옥 회장은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권영세(4선, 서울용산), 권성동(4선, 강릉), 권철승(재선, 화성), 권명호(초선, 울산 동구), 권은희(3선, 비례), 권인숙(초선, 비례) 당선자를 초청하여 당선축하패를 전달했다.

권성동 의원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보좌관을 보냈고 권철승의원과 권은희 의원 그리고 권인숙 의원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 社告

## 안동권씨 대종회 인사발령

안동권씨 대종회 임원 주요 보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직위	성명	비고	직위	성명	비고
수석 부회장	권영익 수석부회장	유임	제례 위원장	권정창 제례위원장	유임
부회장	권속동 안동종친회장	당연직 (정관 제8조 2항)	편집 위원장	권갑현 종무위원	전 동양대학교 교수
상임 부회장	권경석 상임위원(서울)	전 국회의원	총사연구 위원장	권중달 총사연구위원	유임 전 중앙대학교 교수
	권갑상 상임위원(부산)	전 부산종친회장	문헌편찬 위원장	권오훈 문헌편찬위원	유임 전 능동추주 사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영천)	유임			

2020년 6월 1일

안동권씨대종회 회장

### 6월 임원 회비 납부 내역

**부 회장**  
권태복(전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1,000,000  
권대봉(인천재능대학교 총장) 1,000,000  
권혁기(전 부총재) 1,000,000

**종무 위원**  
권갑현(영주) 200,000  
권순채(서울송파) 200,000

**이사**  
권동현(서울) 300,000  
권혁구(음성) 300,000  
권혁철(음성) 300,000  
권오민(김포) 300,000  
총: 4,6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 법 무 법 인 우 램

## 족친님의 권익과 재산을 소중히 지켜드리겠습니다.



### · 학력

- 경북 안동고(31회), 한양대 법과대학(84학번) 졸업
- 부산대 법과대학 대학원(04학번) 수료
- 미국 와싱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과정(1년) 수료

### · 주요경력

- 사법시험 34회 합격(1993년), 사법연수원 24기 수료(1995년)
-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원장
- 2018년 3월 변호사 개업
- 현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 변호사 권영문(대종회 부회장, 동정공파 34세) 올림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8, 201호(거제동, 로펌빌딩) 핸드 폰 : 010-2855-3370 대표전화 : 051-791-1917 팩스 : 051-791-1918